

2. 취부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34세 직종 취부작업자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박○○(남, 46)는 1982년 4월 6일부터 16년 9개월간 제철소에서 정비작업을 한 후 2년 8개월간 용접작업을 하다가 S병원에서 폐암(선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박○○는 24세 때인 1982년 4월 6일 P제철소에서 정비작업을 하다가, 1987년 4월 1일부터 1998년 12월 22일까지 G제철소에서 정비작업을 하였다. 용접은 주 3-4일, 회당 2시간 정도씩 일반 또는 스텐레스강 용접봉과 석면 불티방지포를 사용하였다고 한다(사업장 관계자에 의하면 하루 중 전체 용접시간은 15분 미만이었고 1989년부터는 라스탄, 1998년부터는 실리카이트로 된 불티방지포를 사용함). 각종 배관을 교체하면서 가스 절단 및 용접과 보온재 제거 및 교체를 하였는데, 특히 가을에 정기적으로 단열재를 교체하였다고 한다(사업장 관계자에 의하면 소형 배관의 교체 작업은 있었으나 G제철소 설립 초기부터 기존 보온재를 제거하고 배관을 교체할 때까지는 정비 작업자가 작업하고, 이후 보온재 처리작업은 별도의 보온재 공사업체에서 담당함). 또한 철광석을 분쇄하는 소결공장에서 각종 원부자재를 이송하는 컨베이어의 마모 방지용 박스(box) 설치 및 교체와 이중관 교환작업을 하면서 각종 원부자재 제거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G제철소 설립 후 교체 또는 보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제1소결공장의 폐열보일러 배관에 처리되어 있는 보온단열재를 채취하여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였으나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 5년간 근무한 P제철소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석면을 구입한 기록이 있었다. 2000년 9월부터는 연강, 알루미늄, 스텐레스강 재질의 컨테이너 외부를 가스로 절단한 후 CO₂ 용접, 사상, 도장 등의 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1999년까지 거의 흡연하지 않다가 1999년부터 하루 1갑 정도 피웠다. 2003년 5월 21일 S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좌폐 하엽의 조직검사에서 선암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전신에 전이된 소견이 있었다.

4. 결론: 근로자 박○○의 폐암은

- ①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는데,
- ② 폐암으로 진단받기 21년 1개월 전부터 각종 정비작업을 하면서 최소한 초기 7년간 석면에 노출되었고,
- ③ 16년 9개월간 스텐레스강 용접봉 등을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였으므로,

박○○의 폐암은 정비작업 중 노출된 석면 및 용접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